

견갑와 골절의 수술적 치료

Operation of Glenoid fossa fractures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호정 · 김성재 · 한수봉 · 정성훈 · 정 민

서 론

견갑골 골절은 모든 골절의 1%를 차지하는 드문 골절로 이중 견갑와 골절은 10%를 차지하고 견갑와 골절의 10%에서 골편의 전이가 관찰된다고 한다. 견갑와 골절시 관절내 골편의 전이 또는 관절의 불안정성은 수술의 주요 적응증이 된다. 이에 본 저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견갑와 골절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3월 1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수술적 치료후 12개월이상 추시 가능했던 견갑와 골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골절의 분류는 Idelberg classification을 시행하였고, 수술후 환자의 기능평가는 동통, 근력, 일상생활 능력을 기준으로 우수,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였다.

결 과

총 9례의 견갑와 골절이 있었다. 평균연령은 47세(19세~72세), 평균 추시 기간은 2년(13개월~5년)이었다. 남자는 7례, 여자가 2례였다. 수상원인으로는 교통사고 8례, 추락사고가 1례 있었다. Idelberg classification type I 이 1례, type II 4례, type III 2례, type IV 1례, type V 1례 였다. 견갑부의 동반손상으로는 쇄골 간부 골절 5례, 견봉 돌기 골절이 3례, 견봉 쇄골 관절 탈구 1례, 오구 돌기 골절이 1례 였다. 정복에 사용된 내고정 기구로는 재건금속판 사용이 6례, 소형 금속판 1례, 1/3 원통형 금속판 1례, 소형 나사 3례, cannulated 나사 1례 였다. 수술 후 평균 7주에 골 유합 소견을 보였다. 임상적 평가에서 우수가 4례, 양호가 3례, 보통이 2례 였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1례에서 나사의 관절와 침범이 관찰되어 술 후 4주경에 관련나사만 제거하였고, 1례에서 견봉쇄골 관절을 고정하는 K-강선의 실패로 제거 후 재삽입을 시행하였다. 1례에서 견갑와 하방에 안정성에 지장이 없는 골소실에 관찰되었다.

결 론

견갑와 골절에서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견갑와를 포함한 다발성 골절로 견관절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거나 견갑와내 골편의 전위가 있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추후 합병증의 예방 및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